

## 맥거핀 (macguffin)

평화 대전이 발발한 지도 어느덧 한 세기 가까이 지났다. 인간들의 셈법으로는 1년 반 정도는 지났을 터, 그사이 청명한 하늘에 새는 지저귀고 흙탕물 투성이었던 도량은 맑아졌다. 자연 생태사슬의 존속을 위협했던 악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지만 생태 순환에 대한 선구안을 지닌 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수의 희생을 치른 덕에 최소한의 평화는 지켜낼 수 있었다.

난 숲의 정령이다. 많은 구역 중 G-9라는 섹터를 관할하고 있다. 숲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 개체들이 두루 번성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가 나의 주요 업무다. G-9 섹터에 온 지도 어느덧 반 천년을 넘어서고 있다. 62년마다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 그려지는 것으로 보아 이곳의 시간개념으로는 8년 정도 지난 것 같다.

최초 부임했을 때만해도 이곳의 질서는 나쁘지 않았다. 토지는 비옥했고 들판을 휘감아 도는 개천의 물은 언제나 맑았다. 들판에는 제멋대로 야생의 풀이 자라났고 이들은 초식동물의 훌륭한 먹이가 되었다. 그 어느 곳보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철저히 적용되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다양한 생명체들이 균형을 이뤄 생태사슬을 이어가는 곳이었다. 적어도 그 녀석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녀석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짐시들이었다. 물과 식량을 찾아 유랑하던 그들은 우연한 기회에 우리 숲에 들르게 되었다. 그들은 유랑생활에 지쳤다면 잠시 동안만 쉬고 적당한 시기에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가겠노라 약속했다. 자연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알기에 난 그들의 부탁을 승인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보고 들은 탓일까, 그들은 농경과 목축, 그리고 기계산업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토지를 더욱 비옥하게 가꾸고 한겨울에도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숲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그들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소개한 거름을 뿌리자 곡식은 더 풍성하게 알곡을 맺었고 새와 들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또 땅을 깊게 파낸 뒤 기계장치를 설치해 우물이라는 걸 만들자 언제든 신선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게 되

었다. 먹잇감이 풍부해지고 한겨울에도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자 곰과 뱀은 월동하지 않고 날씨에 상관없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흙과 풀, 나무와 짐승. 숲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의 활동이 왕성해졌고 소문을 들은 새로운 짐승들이 숲의 경계를 넘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숲의 모든 것들이 생기 있게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우물가에서 개구리가 배를 뒤집고 떠오르기 전까지는….

우물물이 고갈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맑고 깊었던 우물물은 쪼그라들어 밑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그나마 고인 물위로는 잿빛 기름띠가 떠있었다. 도랑은 이미 말라 바닥이 갈라졌고 들판의 풀들은 갈색을 띄며 시들어가고 있었다. 때마침 창궐한 쥐떼는 들판의 알곡을 사정없이 잡아먹어 치웠고 먹을 게 없어진 짐승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기묘한 생태사슬을 이루어갔다. 숲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겠노라며 묘책을 알려준 집시들은 줄행랑을 친 지 오래다.

자연의 자정능력만 믿고 있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해졌다. 그동안의 태만했던 내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신께서 노여워하는 것만 같았다. 지금 남은 생명체라도 살리려면 어떤 수라도 내야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생태가 기형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한 것은 각 생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였다. 한정된 땅과 자원으로 몰려든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난 생태구성원의 수를 일정부분 줄이기로 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고민을 수반하는 결정이다. 노약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존재다. 그런데 생태를 장기간 영속하기 위해서라면 늙고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젊고 유능한 자를 살리는 것이 나을까. 내 나이가 몇인지 까마득한 정도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며칠을 고심한 내가 꺼내든 것은 바로 ‘운명’이라는 카드였다. 난 신의 대리인이긴 하나 생명 박탈에 대한 전능을 부여받지 못했고, 설령 그렇다할지라도 자의적으로 생과 사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차라리 난수표에 의해 랜덤으로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게 공평해보였다. 난 이 숲을 관찰하는 정령일 뿐이고 앞으로도 그저 ‘숲

의 평화와 영속성 확보'라는 명분하 필요한 절차만 밟으면 될 터이니까.

**만약의 사태 발발을 대비해 숲 곳곳에 정표를 숨겨놓았으니  
다섯 개를 모으면 숲의 질서를 다시 정연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리라.**

신계서는 G-9에 날 발령 내면서 상기와 같이 가로셨다. 정표는 빛나는 돌이다. 세속의 유인원들은 이 돌을 가리켜 다이아몬드 혹은 루비 따위의 보석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 빛나는 돌의 겉모습에만 치중했을 뿐, 진정한 힘을 몰랐다.

내 관할 섹터에 대해 모르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건만 다섯 개의 정표들을 한 데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과밀한 생물 밀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극비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이 기밀이 새어나갔고 이에 반대하는 특공대원들의 산발적인 반대에 부딪쳐야만 했다.

나름의 지질학 지식을 동원하고 엘프들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정표가 우물가에 묻혔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둘러 발굴작업을 시작했다.

**푸속 -**

땅을 파헤치던 중 갑자기 등에 따끔한 느낌이 들더니 이내 극심한 통증이 척수 신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나는 곧 방어태세를 갖추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동태를 살폈다. 우스꽝스럽지만 날 해코지한 녀석은 손바닥만 한 철갑투구벌레였다.

G-9내에서 투구벌레는 제법 터프한 곤충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전투력이 뛰어나 때론 뱀과 두꺼비 등을 역공격하기도 하는 녀석들이었는데 단합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실제 세력은 강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철갑으로 무장한 투구벌레 한 마리가 홀연히 등장했다. 이 녀석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무리를 한 데 모으기 시작했다. 뿔뿔 뭉친 투구벌레 종족은 제법 강한 세력을 자랑하며 G-9섹터 가장자리에 영역을 잡았다. 이들은 외부의 메뚜기 떼나 두꺼비들이 우리 숲으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과

수꾼 역할을 수행해냈기에 내심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날 칠 줄이야.

녀석은 꽤 거칠었다. 비행속도가 다른 개체와 비교도 안 되게 빨라 잡아채기 어려웠으며 이따금씩 양 더듬이에서 발사하는 체액은 내 살갓을 녹여낼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었다. 다년간 지속된 평화에 내 전투감각까지 무뎠던 것일까. 부끄럽지만 난 이 전투에서 꽤 고전했다.

스피드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나는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 파리채 마냥 휘두르며 투구벌레가 쉬지 못하고 계속 날게 했다. 점차적으로 체력을 갉아먹은 후 잡는다는 전략이었다. 무거운 철갑을 두른 탓인지 녀석은 생각보다 빨리 지쳐갔다. 거의 다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날곤충이 판에 다시 끼어들며 투구벌레를 돕기 시작했다.

사슴벌레였다. 오묘한 녀석이었다. 강력한 집게를 양 머리에 달고 날 위협했으며 내가 날린 에너지파는 양 날개로 방패로 삼아 모두 튕겨냈다. 날개는 아주 딱딱해보였지만 내 모든 공격을 튕겨낼 정도로 탄성이 좋았다. 더군다나 이 녀석은 날개를 자유자재로 뺏다 붙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원형 톱날처럼 나에게 날리기도 했다. 가까스로 공격을 피해냈지만 이 날개는 부메랑처럼 다시 녀석에게 돌아갔고 녀석은 재빠르게 후속공격으로 날 몰아쳤다.

비록 내 일을 방해하는 적이지만 종족의 보존을 건, 사력을 다한 이들의 투쟁은 존경할 만 했다. 아직 첫 번째 정표 발굴을 완료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소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난 시간과 공간의 문(포털)을 열었다. 그 동안 비밀스럽게 육성해왔던 특수부대원 중 특출한 용사 네 명을 소환했다. 고도의 훈련을 받아온 용사들은 각본에 맞춰 움직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전투의 판도를 바꾸었고 결국 티프한 두 딱정벌레를 생포하는데 성공했다.

내가 고전했던 상대를 손쉽게 잡아낸 용사들의 얼굴을 보자 나는 조금 머쓱해졌다. 서둘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시 원래 차원으로 그들을 돌려보냈다. 남은 4개의 정표는 가능한 한 혼자 힘으로 발굴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얼른 움직이자. 생명들로 넘쳐났던 강은 물이끼와 더러운 수생식물들로 뒤덮인 지 오래고 들판의 일부지역은 사막화가 진행되어 사구가 쌓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조금해져 온다.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또 어떤 무리가 내 앞을 막아섰다. 우리 숲 포식자들 중에서도 날렵하고 용맹하기로 소문난 스라소니 무리들이다. 우두머리인 듯한, 얼굴이 새카맣고 기골이 장대한 스라소니가 무리 앞에 나서더니 어떤 주문을 외운다. 잘 훈련된 그의 병사들은 기백 넘치는 목소리로 그 주문을 따라 외친다. 그러면서 특정 박자에 맞춰 왼발을 쿵쿵거리며 들썩인다. 덩치는 작으나 굉장한 위압감이 물려온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고 또 포털을 열어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해야할지 모른다.

그 때였다. 갑자기 온 숲이 찌렁찌렁 울리기 시작했다. 신의 계시였다. 보다 못한 신께서, 절대 권위자께서 노여워하시며 온 숲을 울리며 계시를 내리기 시작하셨다.

**“타노스!!! 엄마가 마당 멀리 가지 말랬지!!!**

**옆집 나비는 왜 또 괴롭히고 있니?**

**얼른 뉘주고 손 씻어!!! 저녁 다 식는다.”**